

한국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피치사 한단계 낮춰 ... 향후 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사가 10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낮춰 '부정적'(Negative)으로 조정하면서 외환위기가 당시 신용등급 추락을 경험한 우리에게 악몽을 되살리고 있다.

세계경제의 내리막 국면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할 전망이다이고 이 경우 내년에 있을 연례평가에서는 국가 신용등급 자체가 내려갈 가능성도 컸기 때문에 정부의 실물경제 회복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등급전망 왜 낮췄나** =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세계 각국의 신용등급을 여러 단계로 구분해 매기면서 이 신용등급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긍정적'(Positive), '안정적'(Stable), '부정적'의 3단계로 전망하고 있다.

긍정적일 경우 향후 평가에서는 등급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정적일 경우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피치는 미국과 유로, 일본, 영국 등 선진국 경기가 리세션(경기침체)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신용국가들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 등급전망을 낮춘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평가를 받은 17개국 가운데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헝가리, 루마니아 등 4개국은 아예 신용등급이 내려갔고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멕시코, 남아공, 칠레, 헝가리, 러시아 등 7개국은 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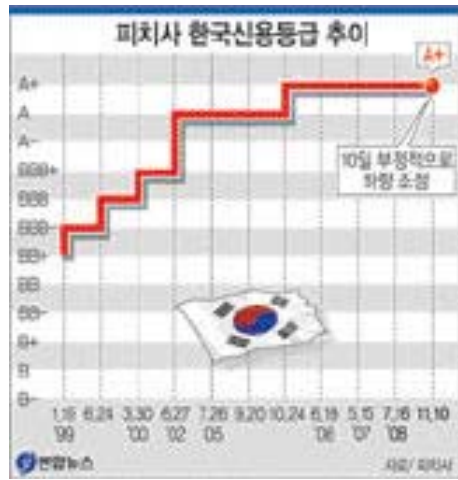
정부는 피치사의 이번 하향 조치가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부정적 영향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구 국장은 "신용등급 자체가 낮아지면 외환채를 발행하거나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금리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전망만 내려가서는 심리적으로 안 좋은 영향은 있었지만 눈에 띄게 불리해지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다른 평가사들도 낮출까** = 정부는 이번 피치사의 등급전망 하향 조정과 관련,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다른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디스의 경우 10월 17일 "한국 정부는 세계 금융시장 위기에 맞서 국가의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국가신용등급을 'A2',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도 같은 날 "한국은 역동적인 경제, 건전한 재정과 외부환경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외환위기 장기체권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전망도 종전대로 '안정적'을 부여했다.

하지만 무디스와 S&P도 세계 실물경제 침체가 지속할 경우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치사는 이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한국은행권의 자금 수요 증가를 우려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연합뉴스

'피치' 악재 불구 국내 금융시장 안정

증시 2일째 상승 ... 환율도 2.50원 하락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다.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2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외환시장도 원화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10일 코스피지수는 17.97포인트(1.58%) 오른 1,152.46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7일에 이어 2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상한가 26종목을 포함해 530개 종목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6.63포인트(2.

04%) 상승한 332.17에 마감돼 지난 5일(340.85) 이후 3거래일 만에 330선을 회복했다. 이날 증시는 피치가 한국의 장기외환표시채권에 대한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는 소식에 등락을 거듭하다 오후 들어 상승세를 굳혔다. 외국인은 42억원 여치를 사들이며 3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으며, 기관도 '사자 행진'을 이어갔다. 외환시장도 안정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2.50원 떨어진 1,326.3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환율은 '피치 효과'로 한

때 급등세를 보였지만 주가가 강세로 복귀하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채권시장에서는 최근 금리 인하 추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고채 3년물의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0.28%포인트 상승한 연 5.00%를 기록했다. 아시아 증시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는 498.43포인트(5.81%) 급등한 9,081.43, 중국증시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127.09포인트(7.27%) 폭등한 1,874.80으로 마감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생산자 물가 석달째 하락

10월중 물가 0.3% ↓ ... 택시·고속버스 요금은 올라



10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대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떨어졌으나 택시·고속버스·시외버스 요금이 올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10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총지수는 전월보다 0.3% 떨어져 8월(-0.3%)과 9월(-0.3%)에 이어 3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문별로는 농림수산물 1.4% 하락했고 공산품과 서비스는 각각 0.3%의 비율로 내렸다. 전력·수도·가스는 1.0% 올랐다.

전년 동월대비 기준으로 총지수는 10월에 10.7%의 상승률을 나타내 8월 12.3%, 9월 11.3%에 이어 3개월 연속 둔화됐다. 윤재훈 한은 물가통계팀 과장은 "환율이 상승했으나 국제유가 하락영향이 더 크기 때문

에 생산자물가가 떨어졌다"면서 "교통요금이 올라간 것은 일부지역에서 국제유가 상승분을 뒤늦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월대비 기준으로 품목별 등락을 보면 서비스 분야에서 택시요금이 3.4% 상승했고 국제항공여객료 4.2%, 시외버스로 3.9%, 고속버스로 6.1%, 택배료 2.0% 등의 오름폭을 각각 나타냈다. 택시요금의 경우

부산지역이 올랐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국제항공여객료는 환율상승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반면 추가하락의 영향으로 펀드수수료는 11.4%, 위탁매매수수료는 18.7% 각각 내렸다. 농림수산물에서 배추는 26.2%, 시금치는 30.8%, 돼지고기는 14.4% 떨어졌다. 반면, 닭고기는 25.7% 올랐고 조기는 35.4%, 굴은 16.8% 상승했다. 농림수산물의 등락이 엇갈린 것은 작황과 출하량에 따른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공산품에서 등유는 5.6%, 휘발유는 2.3%, 경유는 4.6%의 폭으로 각각 떨어졌다. 알루미늄괴는 13.7%, 흑철선은 11.5%의 비율로 각각 내리는 등 금속제품도 대체로 하락했다. /연합뉴스



국제 상수도 전시회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08 국제상수도전시회에 관계자들이 내진구조와 진동흡수 기능 갖춘 PPI system사의 벨크립스 내충격 수도관을 살펴보고 있다. 전시회는 13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쉬워진다

기업도시 개발때 면적 규모 완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에는 기업도시의 면적규모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개발면적의 기준을 22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도시의 최소 면적기준을 33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산업교역형은 500만㎡, 지식기반형은 330만㎡, 관광레저형은 660만㎡를 최저 면적기준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기업도시의 경우 도시행령에서 기업도시의 유형별로 최소면적기준을 정할 계획이며 일반 기업

도시의 '3분의 2' 수준에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올해 국회에 제출해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포된 4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어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이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진다. 그동안 기업들은 지방에 기업도시를 만들어 이전하려고 해도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연합뉴스

“중소 자금사정 악화 韓銀 유동성 늘려야”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중기 부문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중소기업 자금사정 경제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10월 이후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은행의 월평균 중기대출 증가액은 올해 상반기 5조 7천억원에서 3분기 3조 1천억원으로 줄었고 10월에는 2조 6천억원에 그쳤다"며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대출채권 확보는 어려워지면서 은행들이 대출관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불황에 육류 섭취 변화 쇠고기는 덜 먹고 돼지·닭고기 더 먹어

장기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육류 소비패턴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비교적 값비싼 쇠고기 소비를 줄이는 대신 저렴한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육류 섭취를 늘리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광주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올들어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대형 마트의 쇠고기 판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반면 닭고기와 돼지고기 판매량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롯데마트에서 올해 1-10월 쇠고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중단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 쇠고기 판매량은 무려 15.4%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닭고기 판매량은 17.2%나 늘었다.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도 15.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마트에서도 비슷한 판매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0월 이마트에서 판매된 한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1% 감소했다. 수입 쇠고기 판매량은 3.3%나 줄었다. 이와 달리 돼지고기와 닭고기 판매량은 각각 22.4%, 11.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정태기자 jilee@

반토막 펀드 투자자 시름 나몰라라 하는 감독 당국

올 펀드 관련 분쟁 385건 금융위기 여파로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 손실로 시름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판매사들의 불안전판매 행위 단속에 손 놓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까지 접수된 불안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분쟁 건수는 385건으로 작년 한해 분쟁건수인 109건의 3.5배에 달했다. 불안전판매관련 분쟁건수는 올해 상반기 117건이었으나 3분기(7~9월) 중에 무려 268건이나 접수됐다. 불안전판매 분쟁 건수는 2006년엔 40건에 불과했기 때

분에 올해 증시 폭락세가 이어지며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3분기 말까지 해외 및 국내 주식형펀드의 평가손실은 75조원에 달했다. 투자자들은 수수료 수익에 눈이 먼 금융기관들이 금융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일부는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같은 불안전판매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는 최근 몇 년 간 끊이지 않고 제기됐으나 정작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뒷방집고 있다. /연합뉴스

10만원권 발행 연기 왜

독도 없는 대동여지도 국민정서 감안

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을 무기한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무기한 연기는 현 정부가 10만원짜리 고액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5.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짜리 고액권 시제품은 연말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10만원짜리 고액권 작업은 지난 9월부터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로서는 작업이 다시 시작 가능성도 크지 않다. 화폐 발행의 승인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고액권 발행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

이 높다"고 밝혔다. 10만원짜리 고액권 발행은 도안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도안 최종확정, 시제품 작업, 최종발행 등의 과정에 2~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엔 무기한 연기되면 물리적으로 봐도 현 정부에서 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은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10만

원짜리 고액권 발행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은은 작년 5월에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했고 화폐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년말에 최종 도안을 확정했다. 10만원권 앞면에는 김구 선생의 초상화를, 뒷면에는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넣기로 했다. 하지만 목판본이 독도 표시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필사본을 바탕으로 목도를 그려 넣기로 했으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A+과학교육 광주지점	초등 회원지도 과학 교사	대졸/경력무관	2000~2200	11/13	062-973-6445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비서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3	062-382-367
신한포토닉스	회계결산 담당자	대졸/경력2년	1800~2000	11/14	062-949-7114
화인(한천)	(총무부/무역부/일부)정규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4	061-383-0345
아이티블루	KTF 개통실 신입/경력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62-234-1439
항일당생태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영양사	고졸/경력무관	2600~2800	11/17	070-7547-0123
금강기건	영어능력 비서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17	062-975-1384
유로넷	[연봉2400]SK텔레콤 광주 114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1/18	02-780-9595
생활체육공문회사	광고편집디자인/경력직	고졸/경력1년	1000~1200	11/18	062-610-5630
튜닝이이	도색직원/일리스트 프린트 작업 담당 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1/18	062-372-9002
동림전자	경리/회계/총무 사무원	고졸/경력3년	1400~1600	11/18	062-952-7272
남양정보기술	응용 프로그램개발자(자바개발자, 닷넷개발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1/19	062-525-1431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20	02-3708-308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SK Telecom 같은 학교, 학생끼리 통화료 50%할인 학교끼리 T타임 할인제도